

즐길거리 가득 '진안홍삼축제'

18일부터 21일까지 북부마이산 일원서 열려 경매·홍삼사포닌버블탕·선물박스 등 다채

2018 진안홍삼축제가 18~21일 전북 진안군 북부마이산 일원에서 열린다. '즐려라 진안, 마셔라 홍삼, 달려라 청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진안 홍삼축제는 개막행사, 주제프로그램, 문화공연, 체험프로그램, 야간프로그램 등 9개 분야 65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올해 홍삼축제는 차별화된 홍삼이라는 주제에 맞게 색다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강했다. 주제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홍삼과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전에 없던 △대한민국 고려홍삼왕 선발대회, △새로워진 현대식홍삼체험관과 진안홍삼 경매, △사포닌 거품이 보글보글 홍삼사포닌버블탕, △내맘대로 플라 담는 홍삼선물박스, △진안홍삼으로 요리해 맛과 건강을 담은 홍삼음식 주제관 등 새롭게 즐길거리

가 가득하다.

번개맨 어린이 공연, 포토퍼레이드, 1019청소년 콘서트(리듬퍼워, 빈체 출연), 홍삼연구소 직업체험, 홍삼시장 낚시체험, 홍삼연못 금붕어이를 찾아라, 에어바운스 어린이 놀이터 등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홍삼축제장이 한층 젊어졌다.

개막 당일에는 관내 학생들로 구성된 어린이합창단의 진안홍삼축제송 합창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홍삼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상을 시청한다. 또한 개막식에 참여한 2,000여 관람객들과 함께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에 인증받은 홍삼다린액을 함께 마시며 진안홍삼의 진한 맛을 볼 수 있다.

이어 진안군관광으로 최고의 노래 실력을 겨루는 진안홍삼 노래자랑에서 초대가수 지원이, 진시몬을 비롯한

지역가수 3명이 출연한다.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20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가수 송대관, 주현미, 김연자, 김용임, 박상철, 한해진, 서지오, 설하운, 장민호, 박서진 등 10명의 최정상 가수들이 출연하는 '대한민국 트로트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여기에 문화행사로 조선 태조 이성계 건국 신화를 살린 풍금척퍼레이드와 금척무 공연, 중평곡, 향토작가 전시회, 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진안에서 찾은 가야, 그리고 구리고을), 세계무형유산매사냥체험, 향토작가 시화전 등이 열린다. 마지막 날인 21일 오후 2시에는 진안사랑 음악회가 열려 조항조, 금진다, 진성, 김난영, 이정욱, 레이디티 등이 출연, 늦가을 마이산에 가을의 운치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오후 5시에는 폐막행사로 홍삼축제를 위해 고생한 지역주민들과 관계자, 관광객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을 기약하는 엔딩 파티와 청춘 고고장이 열릴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최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조사,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장수군의회가 16일부터 30일까지 제 295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를 심사한다.

군의회는 김용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개 읍·면 25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과 추진성과, 사업 효과, 예산낭비요인 발생여부 등을 중점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례회 첫날인 16일 김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

진에 따른 농가 구제대책 마련 ▲상대제한지역에 위치한 기존 축사의 이전신축 및 축사 증축 시 거리제한 완화 ▲소규모 및 신규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한우 위탁사육 사업 지원 등을 주문했다.

장영수 군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에 대해 많은 제도 완화 및 비용 감감을 추진해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상대제한지역에 위치한 축사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 동의에 따라 이전 설치나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농가가 안송아지를 인식할 경우에는 인식한 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출사까지 소요되는 2년 동안 인지에 대해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를 구성해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종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과 정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군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장수군은 수인성 전염병 등 각종 질병 예방과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질검사는 시설의 월별·분기별로 ▲노후 수도꼭지(일반세균,총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등 10개 항

목), ▲일반 수도꼭지(일반세균, 총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개), ▲급수과정 모니터링(암모니아성 질소,총트리할로메탄, 동, 수 소이온농도 등 11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재검사를 진행해 원인을 파악해

오염원을 제거하고 시설개선 등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름철 정미와 집중호우 등으로 쌓인 침전물과 부유물질 제거를 위해 물탱크(배수지) 청소도 병행하는 등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 수질 검사 결과를 장수군청 홈페이지에 공표해 수도물 품질 검정과 신뢰도를 높여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마이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진안 남부마이산 탐영제 수변공원이 개장했다.

마이산 남부 탐영제 수변공원 개장

LED 조명 설치 불거리 제공

마이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존하면서 근접해서 감상할 수 있는 전북 진안 남부마이산 탐영제 수변공원이 개장했다.

탐영제 수변공원은 마이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계곡수에 반사되는 마이산 형상이 아름다워 그 주변으로 불위에 뜨는 부유데크를 설치하여 마치 불 위를 걸으며 마이산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주변에 부유부수 6곳을 설치하여 햇빛에 반사되는 무지개 빛도 불거리를 제공하고 LED 경관조명을 제공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마이산이 세계 제1의 관광지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른 불거리도 마련했다.

탐영제 수변공원은 문체부 국비를 비롯해 전북 동부권 발전사업 도비와 군비 등 총 15억원을 들었다. 군은 진안군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와 가을단풍철 관광객수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홍삼과 자연의 향기를 선물하기 위해 금년 11월 준공예정일을 앞당겨 개장했다.

이항로 군수는 "마이산남부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조성된 수변공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보도 주변 경관조명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조성 등 관광객 편의 제공과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마이산이 세계 제1의 관광지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와글와글 무주반딧불시장 시장가요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무주반딧불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무주장남인 16일 반딧불시장 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라북도 상인연합회가 주최, JTV 전주방송이 주관하고 전북도와 무주군이 후원하는 가운데 오후 2시부터 기념식과 군민 노래자랑,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의 순으로 열려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과 전북도의회 황의탁 도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황인홍 군수는 축사를 통해 "반딧불시장은 구국의 함성이 깃든 역사의 현장이자 우리군 경제의 맥"이라며

"힘차게 박동 칠 오늘 이 시간이 장터에 숨을 불어넣어 흥성함을 더하고 흥을 돋워 생기를 더해줄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코미디언 황기순의 사회로 진행된 군민 노래자랑 본선 무대에는 12명의 주민들이 올라 노래솜씨를 뽐냈으며, 초청가수 진성 씨와 정수빈, 신수아, 김수찬, 마이진 씨 등이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21일 진안 향우회 만남의 날 행사

전국에 있는 진안 향우회가 진안홍삼 축제에 다 모인다.

진안군 재경군민회(회장 서경석)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진안홍삼축제에 전국에 있는 향우회원들을 초대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향우회원들의 고향 방문을 통해 향우 간의 정을 나누고 애향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만남의 날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는 재경진안군민회에서 기획·주관하고 진안군이 후원한다. 오는 21일 마이산북부 특설무대에서 오후 1시부터 진안 향우회원 만남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이항로 군수, 한승헌 전 감사원장을 비롯하여 안호영 국회의원, 재경, 재부산, 재대진, 재안산시흥, 재인전, 재이천, 재익산, 재군산, 재오산, 재군포, 재전주 향우회원 등 전국 각지의 출향 군민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 김영우, 허중식, 양종섭, 김상남, 성병호, 권오생, 이연우, 허성건, 최산, 정민열, 허석봉씨 등에게 자랑스러운 진안인의 상을 수상할 계획이다. 이어 진행되는 화합한마당에서는 국민가수 조항조, 진성, 금진다, 이현상, 임수정 등 인기가수들이 장식하는 진안 사랑 음악회로 돈을 계획이다.

서경석 재경진안군민회장은 "고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면서 "전국 진안군 향우회 만남의 날에 고향을 방문하여 행복을 듬뿍 담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